



최근 가계신용 동향 및 시사점

李 淳 豪 (研究委員, 3705-6187)

최근 금융권 가계신용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은행 마이너스 대출,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. 가계대출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악화되고 있는 거시경제여건을 고려할 때, 금융회사는 부실자산을 진정매각(true sale)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전성 개선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- 2008년 1/4분기말 금융권 가계신용(가계대출 및 판매신용)은 640.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.2% 증가하였는데, 예금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신용협동조합 및 여신전문사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,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.
 -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8년 1/4분기말 현재 367.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.5% 증가에 그쳤으며,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9.8% 감소한 6.7조원임.
 - 반면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회사의 2008년 1/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은 31.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22.0%에 이르며,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도 103.7조원으로 17.2% 증가하였음.
 - 여전사 및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판매신용 잔액도 2008년 1/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3.6% 증가하여 35.5조원에 이룸.
 - 가계대출잔액의 금융기관별 비중을 살펴보면, 예금은행은 2007년말 61.1%에서 2008년 3월말 60.8%로 감소한 반면,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17.0%에서 17.1로, 신용카드사는 3.4%에서 3.6%로 확대됨.
 - 한편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008년 1/4분기말 현재 224.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.8% 증가에 그친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잔액은 141.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.2% 증가함.
-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,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데다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온 결과로 판단됨.
 -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(LTV) 및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를 강화한데다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



화한 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됨.

■ 금융권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, 소득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 및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, 금리상승 및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가계신용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.

-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현재 0.52%로서 2007년말(0.55%) 대비 0.03%p 하락하고, 신용카드사의 경우 2007년말 4.24%에서 2008년 3월말 2.99%로 하락하는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은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7년말 1.48에 이르렀으며, 개인금융자산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도 2007년 3/4분기 0.42에서 2008년 1/4분기 0.44로 높아짐.
- 또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둔화,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리상승 조짐까지 보이는 등 부정적 거시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가계신용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
■ 한편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(coverage ratio)은 최근 은행권이 소폭 하락한 반면 상호저축은행과 카드사는 상승하여 가계대출 부실 발생에 대한 완충능력은 다소나마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■ 그러나 최근의 대손충당금적립률 개선만으로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.

-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상승하는 것은,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정이 하여신액이 줄어들 경우에도 나타나며, 이는 손실발생 가능성과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- 그러나 부실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대출자의 전반적 신용개선이 아닌 대출상각 및 매각을 통해서도 가능하며, 대출매각이 진정한 매각(true sale)이 되지 못할 경우 표면적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손실가능성은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음.

■ 최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로서는 단기적인 자산감소 및 단기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부실자산의 진정한매각 등을 통하여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- 손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대출자산을 매각/상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단기 수익성을 악화시킴.
- 그러나 금융회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산 건전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. **KIF**